

# 전후 시에 나타난 ‘나비’ 이미지 연구\*

김 유 중\*\*

## I. 들어가며: 전후 시와 ‘나비’ 이미지

한국 근현대시에서 ‘나비’의 표상, ‘나비’의 이미지는 꾸준히, 그리고 여러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어 왔다. 그런 만큼 그간 몇몇 논자들에 의해 이러한 ‘나비’의 의미 구조를 둘러싼 연구들<sup>1)</sup>이 이루어졌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나비의 경우는 그 의미의 진폭이 상당히 넓다는 점이다.

원론적으로 문학 작품에서 어떤 소재의 이미지가 어떻게 전달되고 이해되는가는 전적으로 시인과 독자, 쌍방의 소통을 통해 결정될 몫이긴 하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그 소재가 지닌 원형적이거나 보편적인 의미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 견주어본다면 나비의 경우에는 그런 고정된 틀 자체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채롭고 풍부한 의미역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sup>2)</sup> 다시 말해서 나비라는 소재는 그것이 시

---

\* 이 글은 2018년 11월 23일(금)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56차 현대문학이론학회 전국학술대회의 기획 주제(‘분단 극복 문학의 반성과 전망 - 통일 문학의 시대를 위하여’) 발표문임을 밝힌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이 방향의 몇몇 구체적인 논의들을 거론한다면 다음과 같다.

이남호, 「현대에 나타난 나비와 잠자리」, 시안사, 『시안』 제17호, 2002. 가을, pp. 37-44.

신순복, 「전후 시에 나타난 나비 이미지 연구 - 박봉우와 정한모를 중심으로」,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8.

김영철, 「현대에 나타난 나비 심상의 지수비평적 연구」, 한국시학회, 『한국시학연구』 제20호, 2007. 12, pp. 215-247.

에 활용되었을 경우 단순, 명쾌하게 규정될 수 없는 여러 복합적인 함의들을 지닌다. 이는 결국 나비라는 소재가 한국의 근현대 시인들에게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촉발케 만드는 통로요 매개 역할을 해왔음을 의미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나비의 표상, 또는 이미지가 전후의 한국 시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고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전후시단 역시 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참상과 그것이 남긴 여러 정신적 상흔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요컨대 전쟁과 분단이라는 상황, 혹은 현실은 이 시기 시인들에게도 특수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몇몇 시인들은 시대에 대응해 나가는 그들의 내면적 자아의 모습과 움직임을 나비라는 시어에 담아 표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김규동과 박봉우, 전영경 등은 전후의 분단 현실을 아쉬워하고 그것의 극복을 모색하는 데 있어 공통적으로 나비라는 소재와 그것이 간직한 이미지를 자주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sup>3)</sup> 이 과정에서 이들의 시에 등장하는 나비의 이미지는 단순하게 정의될 수 없는, 여러 다양한 의미 효과들을 산출해낸다. 이런 점들에 착안하여 이 글에서는 전후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이들 시에 나타난 나비라는 소재, 나비의 이미지는 어떤 형태로 제시되었는지, 어떤 텍스트 내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대 시단에 던진 의미론적 과장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위에 거론된 김영철의 경우 그 의미역을 1) 존재론적 탐구(자의식의 표출, 삶의 무상성, 죽음의식) 2) 초월성의 매개(자유의지의 표상, 존재 초월의 매개) 3) 현실 인식의 표상(분단 이데올로기, 문명비판의식) 등으로 세분화하여 이들 각각의 사례들을 수집, 조명하고 있다.

이동순의 경우는 나비가 대체로 그 존재의 연약함으로 인해 무상한 것, 덧없는 것, 순수성 따위를 지칭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종교적 차원의 해석에 기초하여 1) 기독교에서는 부활,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상징으로 2) 불가에서는 자아의 완성, 진정한 아름다움, 불타의 존재성으로 3) 무속에서는 영혼의 메신저, 혹은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인식한다고 정리한다.

이동순, 「장엄한 분단서사와 회복의 시 정신 - 김규동 시인의 시 세계」, 『김규동 시 전집』, 창비, 2011, p. 870.

3) 물론 이외에도 전후의 여러 시인들이 ‘나비’를 그들 시의 소재로 활용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수가 제한적이고 몇몇의 경우는 전후의 상황, 특히 분단 현실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 II. ‘전후’라는 문제의식과 ‘분단’이 남긴 과제

‘전후’라는 용어, 혹은 개념은 흔히 전전(戰前)이나 전중(戰中)과 대비되는 뜻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사실 문학적인 관점에서 이 용어는 단순한 시기 구분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그것은 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문학계 내외부의 변화와 사회 각 방면의 현상 및 효과들을 복합적으로 지칭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시대 사회에 미친 표면적인 영향 이외에도 공동체나 개인의 의식 내면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었는가를 두루 살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서구적인 관점에서 전후 문학이란 제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문학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별다른 전제조건이 붙지 않을 경우 그것은 주로 2차 대전 직후, 일정 기간 동안의 문학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특이하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문학, 혹은 문단에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1945. 8. 15.) 이후, 정부 수립(1948. 8. 15.) 이전까지의 시기는 주로 ‘해방기’, 또는 ‘해방공간’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까닭에 한국 문학(문단)에 있어 전후란 2차 대전이나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로 이해되기보다는 주로 한국전쟁 휴전 이후 약 10년간의 기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4)</sup>

물론 이러한 해석은 학계 차원의 명확한 이론적 검토나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분히 사회 통념에 의거한 것으로,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sup>5)</sup> 그런 까닭에 한국, 특히 한국 문

4) 예외가 있기는 하다. 일례로 1961년 간행된 신구문화사 판 『한국전후문제작품집』과 『한국전후문제시집』의 경우 그 범위를 ‘1945년부터 1960년 12월말까지 15년 동안’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같은 시기 동 출판사에서 간행된 『세계전후문학전집』의 일부(각 1권(『한국전후문제작품집』)과 8권(『한국전후문제시집』))인 점을 감안하다면 이러한 시기 설정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보조를 맞추려는 출판사측의 전략적인 판단이 선행된 결과로 이해된다.

5) 휴전이란 종전과는 다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경우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논리에 따를 경우 한국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도 전후라는 개념을 적용할 마땅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박현수, 「한국문학의 ‘전후’ 개념 형성과 그

학에서의 전후 개념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몇 가지 독특한 사회 역사적 배경을 지니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전후란 한국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엄청난 참화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슬한 난제들을 다시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말하면, 그것은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현실 앞에 속수무책 노출되었던 개인과 민족의 무력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는 과정이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떠올리기 이전에 또 다른 새로운 역사적 비극의 출발점인 셈이다.

분단이란 이 경우 그러한 한국의 전후가 깊어져야 할 비극적 모순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다. 한국에 있어 전후 벌어진 대다수의 문제들은 이와 같은 분단이 낳은 비극과 분단 체제의 고착화로 인한 모순과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한국의 전후란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국토 분단에 의해 드리워진 그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전후 개념의 한국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한에서, 개념 형성의 배경이 되는 남북 분단의 실질적인 영향 및 그것이 문단에 미친 효과들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의 전후란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국토 분단과 그로 인한 교류 단절로 특징지어진다. 남북한의 정권은 이후 상대방을 철저히 원수로 대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이라는 동질감에도 불구하고 정권적인 차원에서는 서로를 멸균과 박멸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그와 함께 체제 내 단속과 안정을 위해 극도의 이데올로기적 무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했다. 이 과정에서 휴전선은 국경 아닌 국경으로 굳어져버렸고,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이후 굳어진 동서 냉전 체제의 최전선으로 자리매김 받게 되었다.

둘째, 이러한 분단 현실은 필연적으로 남북 양측에 걸쳐 수많은 비극을 낳게 되었다. 예컨대 전쟁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과 남겨진 유가족들의 고통은 어떤 식으로도 보상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징집과 피난 등으로 인해 빚어진 이산의 아픔과 실향민의 존재 또한 깊고 넘어가야 한다. 고향이 지척이어도 갈 수 없는 처지에 몰린 실향민들은 한국전쟁이 남긴 또 다른 희

---

성격」,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9호, 2016, pp. 313-315 참조.

생자인 것이다. 가족 전체가 고향을 등진 것은 그래도 운 좋은 편에 속한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생사조차 모르거나 남북에 흩어져 따로 지내는 이산가족의 경우는 분단의 고통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셋째, 분단으로 인해 야기된 양측의 소통 부재는 여러 방면에서 이차적인 문제를 유발한다. 어문학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단적인 예로 남북 간의 어문 규범의 이질화 현상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차이는 해방과 더불어 되찾았던 모국어 주권 회복 노력에도 일정 부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문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정서적인 표현 방식이나 감수성마저도 상호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기에 이념 효과까지 가세하여 문학적인 이질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갔다.

넷째, 이러한 상황 전개가 문학인들에게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졌을 까닭은 없다. 따라서 분단 체제의 고착화는 다음 단계에서 그것의 극복을 위한 문학계 내부의 다양한 모색 및 노력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반전의식이나 휴머니즘 회복을 위한 움직임들이 그 구체적인 예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모색이나 노력이 본격 활성화되기는 어려웠다. 내부 체제 안정을 통한 대결 태세 확립과 상대적 우위 확보가 먼저였던 남북 양측의 지도층들은 정권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계의 이런 노력들을 백안시하거나 심지어는 간섭하고 규제하려 들기까지 했다. 결국 분단 극복을 위한 문학적 모색이나 움직임은 그런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 속에서 상당 부분 변질되거나 잠재화된 형태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 III. 전후 시에 나타난 ‘나비’ 이미지의 제 양상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에 있어 전후가 낳은 문제의식들과 분단으로 인해 빚어진 모순적 현실들을 넘어선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학은 때로 현실 너머에 펼쳐진 가능성의 세계를 겨냥하고 탐문하기 위해 존재한다. 특히 시의 경우에는 상징과 암시, 이미지의 적극 활용이 가능한 장르라는 점에서 그런 시도가 좀 더 용이하다. 다시 말해서 이때의 극복이란 그것의 실현 가능성 여부보다도 문학적 상상력과 열망을 통해 보다 이상적인

차원을 선취하려 하는 데 있다고 해석함이 온당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후의 한국 시단에서 ‘나비’의 이미지가 분단 현실과 결부하여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점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나비’는 원래가 다채롭고 폭넓은 의미역을 지닌 소재이긴 하나, 한국만의 특수한 전후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의미 효과들을 연출해나가게 된다. 이를테면 전쟁이나 분단이 가져온 위의 제반 여건들은 ‘나비’ 본래의 풍부한 상징성과 상상력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제약은 또한 기존의 의미와는 차별화된 또 다른 의미 생산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런 한국적인 특수한 제약 조건과 그에 상응하는 ‘나비’ 이미지의 특별한 만남은 한국의 전후 시에서 검출되는 독특하고 이색적인 장면으로 간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 파괴를 통한 창조, 또는 초극 의지: 김규동

그간 김규동의 초기 시편들은 주로 전후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왔다. 이러한 이해는 그가 1950년대 전후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후반기> 그룹의 동인으로 참여한 사실을 중시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 시기 그가 서구 모더니즘의 영향을 깊이 받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경우 그에게 무엇보다도 크게 다가왔던 것은 모더니즘의 문명비판적인 측면이다.

이와 같은 그의 태도는 그의 문학 스승인 김기림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시대와 역사, 현실에 대해 유달리 민감하게 반응한 것 역시 그런 영향의 카테고리 내에서 해석 가능하다. 자신의 첫 시집 제목을 『나비와 광장』(산호장, 1955)으로 정한 것도 따지고 보면 김기림의 작업을 강하게 의식한 결과로 생각될 수 있다.

김기림은 그의 유명한 시 「바다와 나비」(『여성』, 1939)<sup>6)</sup>에서 근대에 대한 피로감을 직,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런 피로감의 정체를 영미식의 문명 비판적 태도와 사회성에 대한 관심으로 읽을 수도<sup>7)</sup>, 제국의 수도 동경에서 느낀 식민지 지식인의 실망감 내지는 좌절감의 한 표현<sup>8)</sup>으로 읽을 수도 있

6) 애초에 『여성』지에 처음 발표되었을 때의 제목은 「나비와 바다」이다.

7) 김용직, 「모더니즘 초극의 시도」, 김유중 편, 『김기림』, 문학세계사, 1996, pp. 283-307.

8) 김윤식, 「수심을 몰랐던 나비」, 『이상 연구』, 문학사상사, 1987, pp. 269-296.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이 먼저든, 보다 본질적인 것은 서구 모더니즘과 그것이 기반인 근대가 더 이상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유토피아의 이미지로만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계몽의 빛이 강렬했던 만큼 그로 인해 생긴 그림자 또한 짙을 수밖에 없었다. 근대가 낳은 갖가지 모순과 병폐는 인류 전체에 커다란 화를 불러왔다. 굵을 대로 굵아서 결국 터지고 만 것이 제1, 2차 세계대전이다. 모순의 끝은 전쟁이요 전쟁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이들의 죽음과 희생을 몰고 왔다. 문제는 애초부터 우리에게 근대를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전쟁을 회피할 권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싫든 좋든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받아들인 이상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동시에 그에 따른 혼란과 비극은 온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김기림은 1930년대 중반 무렵 일찌감치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sup>9)</sup>

김규동에게 한국전쟁이란 이런 김기림 식의 근대관과 전쟁관을 참조할 때에만 비로소 이해될 성질의 것이었다. 어설프게 도입된 이 땅의 근대가 낳은 갖가지 모순과 병폐들이 응축되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 한국전쟁이었다. 이 경우 ‘나비’란 우선 한국적 근대의 제 모순과 그것이 낳은 기묘한 부조화와 무질서를, 그리고 그 정점에 놓인 전쟁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고발하기 위해 동원된 시적 장치이다.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

기계처럼 작열한 심장을 축일  
한 모금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에서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하는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

9) 이 점에 대해서는 김기림의 대표작 「기상도」에 나타난 ‘태풍’ 예보를 ‘전쟁’,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예감으로 이해한 줄고, 「「기상도」의 주제와 ‘태풍’의 의미」, 한국시학회, 『한국시학연구』 제52호, 2017, pp. 9-47 참조.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의 조수에 밀려  
 흰나비는 말없이 이즈러진 날개를 파닥거린다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하여버린 지 오랜 유역 ---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흰나비는  
 또 한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여본다.

--- 「나비와 광장」<sup>10)</sup>

위의 인용 시에서 ‘나비’는 지금 광장 한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 광장이란 실상 제트기들이 숨 가쁘게 이, 착륙하는 ‘활주로’다. 근대란 이처럼 진보를 향해 한 방향으로 ‘돌진’하는 ‘활주로’인 셈이다. 오로지 ‘돌진’만이 목표이며, 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들을 희생해야만 한다. ‘한 모금’의 휴식이나 여유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인간들 사이의 따스한 온기와 푸르른 생명력은 사라져버리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활주로에 널린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 ‘투명한 광선’과 ‘진공의 해안’과 ‘과묵한 묘지’의 풍경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제트기의 백선’과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의 조수’이다.

시인은 위 시를 통해 동시대인들에게 더 이상의 길이, 희망이 남아 있는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 대답은 심히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그걸 바라기에는 ‘신도 기적도 이미 / 승천하여버린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시적 자아인 ‘흰나비’는 여기서 문득 어디로 향해야 할지 스

10) 이하 인용된 김규동의 시는 김규동, 『김규동 시 전집』, 창비, 2011 수록본을 저본으로 한다.



스로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의 ‘날개’는 ‘말없이 이즈러진’ 채로 ‘파닥’ 거릴 뿐이다. 그런 상태에서 이정표도 좌표도 없는 넓디넓은 광장 한 가운데 홀로 덩그러니 놓인 신세가 되어버렸다. 시인은 전후의 정신적 위기상황을 이같이 묘사하고자 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직 전진만을, 쉼 없는 돌진만을 외치던 근대의 막장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런 극한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시적 자아는 끝내 주저앉거나 포기하기를 거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젠가 그 모든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채 묵묵히 자신만의 외로운 날갯짓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인용 시의 끝 부분에서 ‘나비’는 ‘스스로의 신화’에 도전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전후의 피폐해진 현실, 즉 막장에 이른 폭력적인 근대와 ‘대결’ 하고자 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능선마다  
나부껴오는  
검은 사정권(射程圈)

속력의 질주는  
재빨리  
정신의 마디마디를  
역사(轢死)시켰다

……(중략)……

광란하는 바다  
파열하는 빗줄 속에  
낙하하여가는  
선수들의 포물선---

그럴 때마다  
새하얀 광선을 쓰며  
전쟁의 언덕을 올라오는  
어린 나비들은  
민기 어려운 네온사인의 영상(影像) 속에

마그네슘처럼 투명한 아침을 폭발시키는 것이다.

--- 「전쟁과 나비」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그럼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무(無)의 상태로 되돌린다. 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무란 일차적으로 폐허를 의미하지만, 그 폐허는 동시에 시원의 의미로 재해석되기도 한다. 즉 새로운 출발을 위한 터전이 되는 것이다.<sup>11)</sup>

위의 인용 시는 전쟁 속에 담긴 그런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함축한 채로 다가온다. 먼저, 전쟁은 죽음의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다가온다. 전쟁을 낳은 근대의 탄환은 ‘속력의 질주’로 다가왔기에 그것의 ‘검은 사정권’에 든 이상 누구도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정신의 마디마디를 / 역사시켰다.’ ‘광란’과 ‘파열’, ‘낙하’가 난무하는 현장의 무질서와 혼란. 그것이 그가 경험한 한국전쟁의 참 모습이다.

그러나 그러한 파괴적인 면모는 또한 기존의 것을 남김없이 허물고 새로운 날들, 새로운 시대 ‘정신’을 출범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기도 하다. 이 경우 전쟁으로 인한 희생과 죽음은 구세대의 몰락과 그 뒤를 이은 신세대의 부상이라는 시대사적, 정신사적 사건으로 다가온다.<sup>12)</sup> 전쟁의 현장에서 ‘마그네슘처럼 투명한 아침을 폭발’시키며 올라오는 ‘어린 나비’ 때의 이미지는 그런 시적 의도를 반영한다. 요컨대 이 시에 나타난 ‘나비’란 내면으로부터 낡은 인식과 정서의 틀을 폭파시켜 몰아낸 후, 20세기의 후반기에 새로운

11) 전쟁과 폐허에 대한 이러한 의미 부여는 고은에 의해 이미 시도되었던 바 있다.

“그 50년대의 정열과 광태와 퇴폐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폐허를 사랑한다는 뜻이 된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은, 『1950년대』, 청하, 1989, p. 19.

12) 인용 시에서 ‘나비’는 ‘민기 어려운 네온사인의 영상(影像) 속에 / 마그네슘처럼 투명한 아침을 폭발시키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이 구절에 대해 이동순은 아침 햇살의 시적 표현으로 읽는다. 이런 해석에 대해 필자 또한 동의하나 이후 이어지는 진술, 그러므로 나비는 여기서 ‘전쟁, 우울함, 공포 따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촉매장치나 도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텍스트 내적 근거가 빈약할뿐더러, 여기 등장하는 ‘어린 나비’의 이미지, 그리고 ‘투명한 아침’의 이미지와도 해석상 잘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동순, 앞의 글, p. 872.

시대정신의 선두에 서고자 했던 후반기 동인들의 의식성향과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쟁이 지닌 양면성,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위한 예비 작업으로서의 파괴의 의미와 연관된 나비의 출현은 동일 시집에 수록된 다음 시에서도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나타난다.

나비는  
상장(喪章)처럼 휘날리며 오고  
새하얀 태양이  
로터리의 분수 위에 부서질 때  
나의 가슴엔  
장미처럼 타는 전쟁이  
출렁이는 해협을 이루어오고 있다.

--- 「전쟁은 출렁이는 해협처럼」 부분

근대는 그 자가당착적인 모순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정하고 파괴했다. 전쟁은 그러한 근대적 모순의 종착점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인 것이다. 위 시의 시적 화자는 그 엇갈림의 교차로(‘로터리’)에 스스로 위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전쟁의 의미는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전쟁을 가슴속에 타오르는 ‘장미’에, 다시 역동적으로 ‘출렁이는 해협’에 비유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 시의 나비는 그런 전쟁이 지닌 양면적인 속성과 기능을 무리 없이 이어주기 위해 동원된 전략적인 이미지이다. 폭력과 살상, 파괴로 인한 희생(상장(喪章))은 불가피하지만, 그러한 희생이란 경우에 따라서는 ‘태양’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주기도 한다는 점을 위 시는 넉넉히 일러준다.

이렇게 볼 때 김규동의 나비는 근대의 모순이 낳은 한국 전쟁의 비극적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것의 초극과 비상을 꿈꾸는 시인 정신의 승리의 상징이다. 그리고 이는 또한 그가 속한 〈후반기〉 동인들의 시대 의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것은 파괴와 창조, 죽음과 탄생, 종말과 시작이 서로 대립적이지만 한 것이 아니며, 상호 긴밀하게 맞물려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 2. 분단 모순의 극복을 위한 피맺힌 날갯짓: 박봉우

언젠가는 극복하여야 할 것이지만, 분단 상황이란 남북한 모두에게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요 우리의 의식 내면을 짓누르는 각종 제약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문학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후 남북의 문학 활동은 싫든 좋든 분단 문학적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분단이라는 장벽을 넘어 분단 극복을 위한 시도와 모색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민족 내부의 당위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현실적 제약 조건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후 남북한 지식인들의 의식 구조를 가장 원초적으로 짓누르고 지배한 것이 남북 분단 체제의 고착화라고 했을 때, 그러한 현실에 치열하게 부딪히며 저항했던 시인으로 박봉우를 꼽는 데 주저할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남북은 쌍방을 동족이기 전에 적으로 간주하고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들이며 경계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이 설령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 하더라도 그런 적대적 관계가 하루아침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까지 치른 마당에 서로에 대한 불신의 골은 깊을 대로 깊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숨 막히는 현실이 우리의 의지대로 성립된 것만도, 반대로 의지대로 허물 수 있는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편된 새로운 국제 질서, 즉 동서 냉전 체제의 부산물이며 동시에 그것과 연동된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정치, 군사적 대립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분단 극복을 모색하기에는 남북 쌍방 간의 주체적인 노력과 의지, 그리고 지혜만으로는 아무래도 뚜렷한 한계가 있다. 이 경우 민족 내부의 상호 신뢰 회복을 통한 통일에의 열망과 의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주변국들의 역학 구도 및 이해관계의 득실 여부다. 극복을 위한 모색은 물론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되어야겠지만, 그것이 매번 지지부진한 데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는 이처럼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자신이 주역으로 나서기까지는 아직까지 현실적인 제약조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분단 현실의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전후 펼쳐진 박봉우의

초기 시작 활동에 대한 이해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내부의 모순을 민족 자체의 힘과 의지만으로 풀 수 없다는 사실은 시인 박봉우에게 심한 좌절감을 가져다주었다. 현실의 압력은 그만큼 압도적이어서 시인은 그 앞에서 한 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압감 속에서도 그는 그러한 현실에 맞서 싸우며 처절하게 저항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를 떠올린다.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런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종일은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서녘 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모진 바람이 분다.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첫 고향의 꽃밭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붙어간다. 목이 빠삭 말라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

벽, 벽…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날면 아방(我方)의 따스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

이런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설픈 표시의 벽. 기(旗)여……

--- 「나비와 철조망」<sup>13)</sup>

분단 극복을 위한 모색은 우선 분단 현실에 대한 솔직하고도 철저한 인정과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위의 인용 시에서 우리는 분단이 가져온 모순적인 현실을 직시하려는 시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시의 배경이 되는 무대는 남북이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휴전선을 사

13) 이하 인용된 박봉우의 시는 임동환 편, 『박봉우 시 전집』, 현대문학, 2009 수록본을 저본으로 한다.

이에 두고 대치하는 비무장지대의 철조망 근처다.

시인은 스스로 연약한 나비 한 마리로 화하여 남북 양측이 쳐놓은 철조망을 넘나들며 꽃밭을 향해 날아가기 위해 애쓴다. 그러는 동안 어디선가 시린 바람이 불어와 나비의 지치고 가너린 날개를 사정없이 때린다. 철조망에 찢기고 바람에 시달린 그의 작은 날개에는 어느덧 피가 맺혔다. 그럼에도 나비는 그의 비행을 멈추지 않는다.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거기 놓여 있기에.

만일 꽃밭이 나비가 날아가 앓을 이상과 동경어린 세계<sup>14)</sup>라는 해석이 타당하다면, 우리는 그러한 꽃밭이 지닌 의미를 분단으로 인해 상처 입은 자아가 그리는 ‘고향’(첫 고향의 꽃밭)의 의미로부터 ‘통일’(마지막 ‘꽃밭’)의 의미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확장시켜나가기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그러한 확장은 생각만큼 간단하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실의 벽은 너무도 높고 두터우며, 그에 보태어 겹겹으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철조망을 통과해야 하는 나비에게 상처란 피치 못할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남북을 오가며 고향으로의 귀환을 꿈꾼다는 것, 나아가 통일에의 염원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당시는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피투성이 날개로 날아가는 나비의 이미지는 시적 자아의 이 같은 이상에 비례하여 더욱 처절하게 다가온다. 현실은 끊임없이 시인 내면에 자리 잡은 꿈과 이상을 위협하고 제약하려들지만, 그러한 위협과 제약은 시인에게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분단 극복을 향한 그의 열망과 의지는 한층 공고해진다. 그와 함께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향한 염원도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무르익어 간다. 박봉우의 시가 예술적인 형상화나 인식의 깊이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up>15)</sup> 그간 줄곧 문단

14) 노용무, 「박봉우 시 연구: ‘나비’의 비상과 좌절을 중심으로」, 한국문화회, 『한국문학논총』 제22집, 1998, p. 8.

15) 김현승은 그의 시에 나타난 언어의 특성을 거칠고 산만하며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오성호 또한 거칠고 직설적인 진술로 일관하여 충분한 시적 형상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 역시 소박하고 추상적인 수준으로 극복을 향한 전망 역시 관념적이고 심정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점을 그의 시가 지닌 중대한 결함으로 지적한다.

김현승, 「박봉우의 인간과 시」, 『사월의 화요일』, 성문각, 1962, p. 149.

오성호, 「상처받은 ‘나비’의 꿈과 절망 - 박봉우의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국

과 학계의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던 데에는 누구도 선뜻 다가서길 꺼려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 조건 속에서, 이처럼 민족의 공동체적인 화합과 통일 의지를 전면에 내세운 담대한 시적 용기와 의지가 돋보였던 까닭이다.

물론 꽃발을 향해 날아가고자 하는 시적 자아의 비상이 항상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에 현실의 압도적인 중력은 나비의 비행 시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했다.

문둥이도 지아비와 지어미를 죽인 자식도 인육가(人肉家)의 허술한 어느 골목길…… 백도(百度)의 고열(高熱)에 흠뻑 젖어 매일 밤 미친 개마냥 혀를 낼름거리는 계집년들에게도 나비 한 마리 쉬어갈 꽃 한포기 없는 매정스러운 황토(荒土).

--- 「부감도(俯瞰圖)」 부분

꽃발은 없는가 우리가 잠을 자고 가도 좋을 그런 꽃발은 없는가 우리의 심장을 익은 해와 같이 태워도 좋을 사랑이란 집은 사랑이란 집은 영영 없는가.

--- 「사수파(死守派)」 부분

슬픈 종일을 느끼게 하는 나를,  
이 육체를  
녹슬은 철조망의 사슬에  
나비처럼 두고 싶은  
불모의 영토가 있을 뿐.

--- 「회색지(灰色地)」 부분

현실은 사뭇 냉혹하다. 분단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추구하려는 시인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점점 두터워져만 갔다. 그리고 그 벽은 마침내 대지의 원초적인 생명력조차 갈아먹을 지경이 되었다. 철조망에 가로막혀 남북이 서로에게서 멀어져 남남처럼 지내는 동안, 민족적 동질성은 심하게 훼손되고 낱알이 이지러진 극한 상황만이 연출될 뿐이다. 그 결과 대지 역시 건강성을 잃고 왜곡되고 타락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왔다.

‘꽃 한포기’ 떠올리기 힘든 ‘매정스런 황토’ 위에서, ‘녹슬은 철조망의 사슬’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불모의 영토’, ‘회색지’에서, 나비는 내려앉아 쉴 곳조차 찾지 못한 채로 애처로이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꽃밭은 없는가’라는 그의 안타까운 외침은 허공중에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져간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현실 인식은 도리어 그에게 나비가 찾아가 내려앉을 꽃밭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집념과 의지를 불려일으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아름다움만으로 피나게 싸워 바다의 그 깊은 밑바닥에서 열려 오는 그것은  
먼번 하늘같이 트여 오는 창(窓)이 아닌가.

진한 팔월의 태양. 홍색 장미가 무르녹게 내 마음 언저리에도 피어 이 중립  
지대에 무슨 기(旗)를, 기를 세워야 쓰는 게 아닌가.

발목같이 연한 이 어린 것에게 햇살같이 따스한 보듬음을 주시려는 이젠  
오월 같은 것이 아닌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제대로 피어나려는 그 미미한 눈물 같은 것에게 이런  
넓은 하늘을 주려는 것인가.

내가 사는 영토에, 또 세계에 무슨 의미를 주는가 모진 바람이 불어도 끝끝  
내 날아올 저 꽃밭에,

피 먹은 나비여……

--- 「저항(抵抗)의 노래」

‘피먹은 나비’는 ‘모진 바람이 불어도 끝끝내 날아올’ ‘꽃밭’을 찾아서 날아간다. 그런 그의 꿋꿋 날갯짓은 시인이 사는 이 척박한 ‘영토’에, 그리고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다. 꿋꿋으로 물든 나비의 날갯짓은 분단의 고착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최후의 저항 정신을 상징한다.

남도, 북도, 좌도, 우도 거부하는 그 곳은 형식상 ‘중립지대’에 속한다. 그



런 중립의 대지 위에 그는 어떤 외부적 조건에도 종속되지 않고 때 묻지 않은 생명력과 순수함으로 가득 찬 그런 ‘기’를 세우고자 한다.<sup>16)</sup> 그리하여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간,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인적, 물적 교류조차도 단절된 현장에서 그는 스스로 남북 화해와 그것을 통한 민족적 자립의 가능성을 엿보고자 한다.

그 과정은 물론 험난하다. 앞서 누차 지적되었듯이 이러한 희망은 우리 민족만의 독자적인 판단과 의지만으로 실천에 옮겨질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객관적인 상황과 조건은 시인에게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핏빛 상처를 얼룩진 채 날아가는 한 마리 나비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강한 믿음과 굳은 의지가 그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 3. 전쟁이 미친 내면적 효과, 또는 저항의 여러 가지 모습: 전영경

김규동이나 박봉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전영경의 경우에도 전후 시단에서 나비의 소재와 이미지를 즐겨 활용한 주요시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될 수 있겠다.

그간 그의 시적 편력은 주로 문명 비판적 풍자와 해학의 세계, 그리고 욕설과 쌍소리, 욕담 등을 시작에 적절하게 활용한 파격<sup>17)</sup>과 언어적 요설이라는 하급 문체적 특성에 대한 관심<sup>18)</sup>들로 설명되어왔다. 그러나 그의 시작 활

16) 박봉우의 시에 등장하는 ‘기’의 이미지는 개별 텍스트마다 약간씩의 진폭을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시인의 분단 극복 의지’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선화, 「박봉우의 시의식과 이미지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pp. 84-94.

17) 이러한 파격은 일찍이 시작에 있어 비시적, 반시적 요소의 도입으로 주목받았던 김수영의 경우에 비해볼 때에도 시기적으로나 분량적인 면에서 별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18) 이순욱, 「전영경의 풍자시 연구」,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제31집, 1994. 12, pp. 185-209.

신진숙, 「전후시의 풍자 연구 - 송옥과 전영경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4.

이순욱, 「1950년대 한국 풍자시 연구 - 송옥, 전영경, 민재식을 중심으로」, 부

동에 대한 이러한 일반의 이해는 첫 시집인 『선사시대』(수문사, 1956)의 경우에는 전폭적으로 수용되기 힘들다. 이때 벌써 일부 시편들에서 파격적인 요소들이 간간히 발견되기도 하나,<sup>19)</sup> 이후의 시편들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전면적이라거나 과격한 편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첫 시집에서 그는 전쟁 체험을 원형으로 하는 전후의 좌절과 고독, 그리고 그것들에 바탕을 둔 서정적인 정서와 이미지를 위주로 한 시편들을 선보이는 데 주력했다.<sup>20)</sup>

황소가 있다는 마을의 돌담에 호박꽃 피었다는  
어느 일요일입니다.  
나비는 바다를 찾기로 했습니다.  
나비는 잊음 많은 일요일 날 늦잠을 잤습니다.  
잠꾸레기였습니다.  
노오란 상복(喪服)을 입은 나비는 성황당(城隍堂) 고개를 넘어야만  
바다를 찾았습니다.  
수림(樹林)을 뚫고 목탁(木鐸)이 들려 왔습니다.  
잡초(雜草).  
따발총에 넘어진 소녀는  
성황당 고개 언덕에 누워 있었습니다.  
길이 묻혔습니다.  
일요일. 바다로 가는 나비는 묘지(墓地) 없는 표(表)말에 주저앉았습니다.  
홀적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나비는 바다를 넘어다 뵈었습니다.  
엄청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황당 고개를 넘어 마을의 돌담에서, 호박꽃은

산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5.

이승하,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풍자성 연구 - 송옥, 전영경, 신동문, 김지하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5.

김양희, 「전영경 시 연구 - 요설의 언어와 반서정의 시학」, 어문연구학회, 『어문연구』 제69집, 2011. 9, pp. 239-269.

- 19) 이 점과 관련하여 전영경의 풍자시에 대한 관심을 ‘전쟁 체험을 원형으로 하여 전후의 절망감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연결시킨 김양희의 지적은 주의를 요한다. 김양희, 앞의 글, p. 241.

- 20) 이와 함께 현실 비판 의식을 앞세운 산문적 언술과 파격적인 행 같음을 특징으로 하는 시편들도 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음을 밝힌다.

빙그레 웃음을 터트렸습니다.  
 산울림이 있었습니다.  
 황소는 성황당 고개 위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노오란 상복을 입은 나비는 묘지 없는 풋말 위에서  
 깜빡 줄었습니다.  
 나비는  
 마을 바다 일요일을 잊었습니다.

--- 「SUCH IS LIFE」<sup>21)</sup>

활자화된 시인의 첫 작품이다.<sup>22)</sup> 보다시피 첫 작품부터 ‘나비’의 소재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시의 나비는 ‘상복을 입은 나비’, 즉 죽음을 목격하고 애도하는 나비이다. 그 죽음은 전쟁이 몰고온 폭력에서 비롯된 것일 텐데, 여기서 폭력의 희생양은 ‘따발총에 넘어진 소녀’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나비의 태도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한결 여유롭고 평화롭다. 일요일을 맞아 마치 휴식이라도 즐기듯이 느릿느릿 한가로이 유유자적하며 보낸다. ‘늦잠’을 자는가 하면 ‘바다’를 보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묘지 없는 풋말’ 위에 내려 앉아 깜빡 즐기까지 한다. 뿐만 아니다. 그를 둘러싼 풍경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호박꽃이 웃음을 터뜨리는가 하면 황소는 고개 위에 대고 고함을 지르기까지 한다. 죽음은 애도되지만, 그 애도의 정도는 별로 깊지가 않다. 마치 일상처럼 스치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가볍게 지나칠 뿐이다.

위 시는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죽음이 몰고 온 충격이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예전과 같지 않음을 증언한다. 무엇보다도 죽음 자체가 너무 흔해진 탓이다. 도처에 죽음은 널려 있고 그 죽음에 따른 애트는 장면들은 설 새 없이 목격되었다. 웬만한 죽음은 이제 관심거리조차 되지 못한다. 그만큼 사람들조차 무덤덤해져버렸다. 나비는 그런 사람들의 내면 의식이 투영된 존재다. 그

21) 이하 인용된 전영경의 시는 전용호 편, 『전영경 시 전집』, 현대문학, 2012 수록본을 저본으로 한다.

22) 이 텍스트는 원래 『연세춘추』 1953년 10월 1일자에 「묘지 없는 풋말」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바 있다. 이후 그의 첫 시집에 수록되면서 제목과 본문 일부가 오늘날과 같이 수정되었다.

런 것이 바로 당시 이 땅에서 일어난 죽음이며, 동시에 이 땅에 남겨진 이들의 삶(LIFE)의 모습이다.

이런 당대의 상황은 시인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전쟁은 이처럼 인간의 감정조차 무디게 만들었다. 이런 상태가 이 이상 지속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인은 이와 같은 상황 제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반성을 촉구한다.

나비는 바다를 생각하고.  
 나비는 들국화로부터 나래를 쳤다.  
 아침이다.  
 일요일의 공동묘지(共同墓地)는 승지에서 돌아난 버섯처럼,  
 일제히 하늘을 향해  
 항의(抗議)를 한다.  
 (이것이무고한인간의말로울시다)하고.  
 나비는 둥그렇게 ○을 그리고  
 바다.  
 나비는 수심(水深)을 생각하고.  
 다시 나비는 둥그랗게 ○을 그렸다.

--- 「공동묘지」 부분

위 시의 분위기는 선배시인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1939), 그리고 「공동묘지」(1939)를 연상케 한다. 김기림의 시들이 일제 말기의 암울한 시대상과 태평양전쟁을 목전에 둔 식민지 지식인의 을씨년스런 내면 풍경을 음각화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 텍스트는 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넋을 추모하고 위로하는 한편 그들의 무고함을 부각시키고자 애쓴 것이다.

인생이란 바다의 수심처럼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미처 다 알 수 없는 깊이를 지닌다. 그러나 전쟁 중에 희생된 많은 이들은 그들의 인생을 제대로 경험해보기도 전에 생을 마감해야 했다. 나비는 바다 위를 두 차례 둥그랗게 원을 그리며 날기를 반복한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 그는 억울하게 먼저 스러진 이들의 명복을 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추모 행사를 마무리한다.

피투성이가 된 우리 모두의 가슴 위에 꽃나무를 심어 보는 수녀(修女)의 자학(自虐).

시시한 가슴 위에도 꽃은 피어야 하는가.

슬픔보담도 우리들에게 슬픔보담도

괴로운 몸짓, 괴로운 몸짓을 가져다주는, 나비는

꽃나무 위에서 학살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꽃나무, 위에서 꽃나무, 꽃나무는 분별(分別)없이 학살을 당하는

대량(大量)의 비극(悲劇) 때문에

……(중략)……

시시한 가슴, 시시한 가슴 위에도 꽃이 피어야 하는 까닭은

피투성이가 된 나와.

너와.

당신의 가슴 위에서

흘러오고 흘러가는 구름을 잡고.

(행복은그렇다행복은삼년후에온다)고.

꽃나무를 분별없이, 꽃나무를 분별없이 심어야 하는

무언의 결의 때문에

우리들에게 슬픔보다도 괴로운 몸짓을, 우리들에게

슬픔보담도 괴로운 몸짓을 강요하는

시시한 가슴 위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

수녀, 수녀는

그 무슨 도전(挑戰)을 가져 보는 것이다.

--- 「고독(孤獨)에의 학살(虐殺)」

무엇보다도 전쟁은 우리 모두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황폐해져 버린 내면을 회복하고 다시 예전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관심과 노력, 정진이 필요하다. ‘피투성이가 된 우리 모두의 가슴 위에 꽃나무를 심어 보는’ 행위란 그런 인간성 회복을 위한 시도라 할 것이다.

도저히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 꽃나무를 심고 가꾸어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꽃나무’는 분별없이 ‘학살’ 당하고 그들 사이를 오가는 ‘나비’ 또한 ‘학살’ 당한다. 그런 ‘대량의 비극’은 전후의 황폐해진 정신세계를 대변한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그 작업에

힘을 쏟는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봐줄 리가 없다. 오로지 고독 한 가운데에서 묵묵히 자신이 옳다고 믿는 행동을 밀고 나가는 구도자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것은 그런 이치이다. 이 작업에는 ‘수녀’와 같은 정경함과 경건함, 그리고 인내심과 순종의 미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어쩌면 위 텍스트에서 보듯 스스로에 대한 ‘자학’이자 불가능에 대한 ‘도전’일지 모른다. 이 상황에서 불모의 대지 위에 희망의 꽃을 다시 피어 오르게 하고, 나비와 같이 자유로운 영혼의 비상을 꿈꾸는 일은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좌절과 고통을 강요하는 일이다. 시인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의 내면에는 끝끝내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열망이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러한 열망은 전후의 피폐해져버린 정신적 풍토 속에서 기어이 한 그루의 꽃나물을 심고 키워냄으로써,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고통과 정신적 상처가 남긴 불모의 흔적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시인 자신의 ‘무언의 결의’와도 통한다.<sup>23)</sup>

산새도 구슬피 우는 갯마을은 고개 넘어 있었고.

삼밭 저 쪽 성황당(城隍堂)이 있는 마을을 돌아서 사무친 울음.

울음이다.

파아란 보리밭, 보리밭 이랑을 따라, 나비를 쫓던

다시 나비를 쫓던 소년은

실은 바보였다.

고개 하나를 두고 마을에서도 남북전쟁(南北戰爭)이 있었고.

보리밭 능선, 그 저쪽엔 공동묘지(共同墓地)가 있었고.

포성이 잠잠히 가라앉은 날.

애비와 애미와 오빠와 누이와, 그리고 이웃을 묻어야 했고.

……(중략)……

자꾸 꽃이란, 꽃이란 꺾어 놓고 보자던 순이도 죽으면 마지막이었고, …… 또

23) 이 점과 관련하여 전계림은 거듭된 학살에도 불구하고 ‘꽃나물을 분별없이’ 반복적으로 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전쟁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의지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설명한다.

전계림, 「전영경 시 연구 - 시적 양식과 서사적 양식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1, p. 18.

다시  
나비를 따라  
나비를 쫓던 소년(少年)이 있었다.

--- 「이유(理由) 없는 반항(反抗)」

‘파이란 보리밭’과 ‘보리밭 이랑을 따라’ ‘나비를 쫓던’ 소년의 환상. 그것은 아마도 시인 추억 속에 간직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아닐까 한다. 그 시절 그는 아무 것도 모른 채 행복하기만 했다. 그러나 ‘남북전쟁’의 여파가 이 작은 시골 동네에까지 미치자, 평화롭던 그 시절의 기억은 더 이상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무수한 죽음을 목격하였고, 그 수만명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갔다. 그는 ‘애비와 에미와 오빠와 누이와, 그리고 이웃을 물어야 했’으며, 어린 시절 같이 뛰놀던 ‘순이’ 역시 떠나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다.

여기서 ‘나비’란 세상 물정 모르던 시인의 어린 시절 순수한 마음, 순진무구한 의식 세계를 표상하는 이미지일 것이다. 그런 나비가 좋아 나비를 쫓던 소년은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해버린 지금, 세상에 적응하기 힘든 ‘바보’가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시인은 가끔씩 그 시절이 그립다. 나비를 따라 자연을 누비며 세상물정 모르던 그 시절 철없던 ‘바보’의 세계로 되돌아가고 싶다.

현실적으로 그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돌아가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그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다. 알면서도 자꾸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은 그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다른 이유는 없다. 다만 돌아가고 싶을 뿐이다. 위 텍스트의 제목이 「이유 없는 반항」인 것은 그런 의미에서이다. 그런 점에서 이 텍스트의 ‘나비’는 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현실의 비극성을 겪기 이전의 상태로,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순수 동경의 세계를 쫓으려는 시적 자아의 이상을 반영한다.

#### IV. 나오며: ‘나비’ 이미지의 계보와 그 확장 가능성

‘나비’ 이미지는 한국 근현대시에서 꾸준히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이

전후 시에서처럼 밀도 있게 사용되고 조명받았던 예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들에 기초하여 이 글은 김규동과 박봉우, 전영경 등 세 시인의 전후 시에 나타난 나비 이미지들을 추출하여 그 의미 구조와 특성에 대해 소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물론 이들 시인의 후속 시편들에서도 ‘나비’의 소재와 이미지는 간간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시인에게 있어 나비 이미지의 출현은 전후의 시기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실 나비 이미지는 이들 시인 이외에도 이 시기 활동하던 일부 시인들의 시편에서 간간이 다루어진 바가 있다.<sup>24)</sup> 따라서 이 이미지의 전후적인 맥락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후에라도 이와 같은 여타의 시인들의 경우까지를 망라하여 다루어볼 필요가 있겠다. 나아가 이러한 전후적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현대사에서 나타난 ‘나비’ 이미지의 계보학적 정리 작업 또한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더니즘적인 맥락에서의 전후 한국 시에 나타난 나비 이미지의 계보가 한 차례 지적된 바 있으나<sup>25)</sup> 리얼리즘이나 순수 서정시적인 관점에서의 본격 정리 작업은 아직 이루어진 예가 없는 것으로 안다.

해방기나 휴전 직후의 사례를 보더라도 특정 나비의 출현은 길조로 인식되었다. 특히 태극문양을 지닌 나비의 경우 독립의 사자<sup>26)</sup>로, 남북통일의 서조<sup>27)</sup>로 두루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기록이 남아 있다. 소설이나 수필 등 산문의 경우에도 몇몇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sup>28)</sup> 이런 사례들을 수집하여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 시기 나비 이미지의 상징성과 그 숨은 의미는 보다 풍성하고 다채롭게 재정립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24) 조향(「바다의 층계」, 「EPISODE」), 김수영(「나비의 무덤」), 김정린(「의식 속의 나비들」), 고원(「나비의 노래」), 이수복(「무덤과 나비」), 정영태(「나비와 같은 신」), 정훈(「나비아 청산 가자」), 김해성(「나비와 화분과」), 유경환(「나비」), 조벽암(「원한의 팻말」, 「분계선 II」) 등.

25) 송기환, 「박봉우 시의 근대성 연구」, 『한국 시의 근대성과 반근대성』, 지식과교양, 2012의 제2절 「근대를 향해하는 나비의 세 가지 형태 - 김기림, 김규동, 박봉우의 경우」 참조.

26) 「기(奇)! 독립의 사자 태극이 뚜렷한 나비가 출현(고창)」, 『동아일보』, 1946. 6. 4.

27) 「태극나비 출현 - 남북통일의 서조(瑞兆)?(군산)」, 『동아일보』, 1953. 8. 10.

28) 오상순(「불나비」), 김동리(「흰나비 - 뱀안'의 실재에 대하여」), 김요섭(「나비 잡는 마을」) 등.



시야를 좀 더 멀리 확대해서 내다볼 경우, 나비 이미지의 해석 가능성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 일례로 분단 및 분단 극복의 차원을 넘어, 남북 간의 자유 왕래를 통한 공동체적인 연대감 구축과 진정한 통일 문학, 통일시의 단계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도 이 나비의 소재와 이미지는 이 땅의 문인들에게 색다른 영감을 줄 수 있을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문제에 대한 후속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김규동, 『김규동 시 전집』, 창비, 2011.  
임동환 편, 『박봉우 시 전집』, 현대문학, 2009.  
전용호 편, 『전영경 시 전집』, 현대문학, 2012.

### 2) 단행본

- 고은, 『1950년대』, 청하, 1989.  
김유중 편, 『김기림』, 문학세계사, 1996.  
김윤식, 『이상 연구』, 문학사상사, 1987.  
김현승, 『사월의 화요일』, 성문각, 1962.  
송기한, 『한국 시의 근대성과 반근대성』, 지식과교양, 2012.

### 3) 논문

- 김양희, 「전영경 시 연구 - 요설의 언어와 반서정의 시학」, 어문연구학회, 『어문연구』 제69집, 2011. 9.  
김영철, 「현대에 나타난 나비 심상의 지수비평적 연구」, 한국시학회, 『한국시학연구』 제20호, 2007. 12.  
김유중, 「「기상도」의 주제와 「태풍」의 의미」, 한국시학회, 『한국시학연구』 제52호, 2017. 11.  
노용무, 「박봉우 시 연구 - ‘나비’의 비상과 좌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학회, 『한국문학논총』 제22집, 1998.  
박현수, 「한국문학의 ‘전후’ 개념 형성과 그 성격」, 한국현대문학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9호, 2016.  
신순복, 「전후 시에 나타난 나비 이미지 연구 - 박봉우와 정한모를 중심으로」,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신진숙, 「전후시의 풍자 연구 - 송옥과 전영경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4.  
오성호, 「상처받은 ‘나비’의 꿈과 절망 - 박봉우의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제7권, 1996.  
이남호, 「현대에 나타난 나비와 잠자리」, 시안사, 『시안』 제17호, 2002. 가을.  
이순옥, 「1950년대 한국 풍자시 연구 - 송옥, 전영경, 민재식을 중심으로」, 부산

- 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5.
- 이순옥, 「전영경의 풍자시 연구」,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제31집, 1994. 12.
- 이승하,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풍자성 연구 - 송옥, 전영경, 신동문, 김지하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5.
- 전계립, 「전영경 시 연구 - 시적 양식과 서사적 양식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최선화, 「박봉우의 시의식과 이미지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